

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 
〈금강축산〉 송일환 대표

# 배워서 남 주는 친절한 한돈 마이스터

글 김대진 사진 엄태현



젓소 5마리를 취미 삼아 키우던 중학생이 어느새 어른이 되었다. 가축을 아끼는 마음으로 달려온 35년의 길. 변함이 있다면 5마리에서 5천 마리로, 젓소에서 한돈으로 그 수와 대상이 달라졌을 뿐이다. 공주시를 대표하는 축산가로서 성공의 비결을 묻자, 대답 대신 오른편에 있는 사훈을 가리킨다. '배워서 남 주고, 벌어서 남 주자!'





### am 05:00 금강처럼 크고 튼튼한 장이 등급 비결!

아직 해조차 보이지 않는 새벽 4시경, <금강축산> 송일환 대표는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 농장으로 출근한다. 어느 정도 농장을 살펴본 후, 그가 작업하는 일은 <금강축산>만의 비결! 요구르트 제작이다. "사람과 같습니다. 장이 튼튼해야 면역력도 좋고, 건강도 좋은 법입니다." 유독 장 건강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 논문과 테스트를 거쳐 얻어낸 송 대표만의 연구 결과 때문이다. 우유를 압축해서 만드는 이곳의 요구르트는 어린 돼지에게는 영양공급을, 어미 돼지에게는 변비를 해소하는 고마운 영양제로 통하고 있다. 이후 배합 사료에도 요구르트가 들어간다. 송 대표는 농장의 모든 돼지의 건강을 위해 모든 사료에 1~1.5% 정도를 첨가하고 있다. 그 결과 이곳의 돼지는 공주시 우성면을 대표하는 유명 한돈이 되어버렸고, 주위의 축산가들에게는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.



### am 11:00 배워서 남 주는 한돈 장인

공부가 한철이라 한다면, 송 대표의 한철은 계속 진행 중이다. 농장을 운영하면서 축산 분야의 공부를 위해 41살에 연암대학교를 입학한 늦깎이 학생은 현재 한경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의 꿈을 키우고 있다. 그리고 매주 1~2일, 오전 11시가 되면 대학 강의를 위해 연암대학교로 발길을 옮긴다. "처음 연암대학교에서 강의를 들었을 때,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. 이제는 그 새로움을 후배들을 위해 전달하니, 감회가 새롭네요." 연암대학교 축산과 학생들을 볼 때면 자신의 옛 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송 대표. 그 때문인지 강단에 올라선 송 대표는 그간의 배움과 노하우를 성심성의로 전달한다는 강의 평이 많다. 현대 사회에서는 꾸준한 연구가 뒷받침돼야 모든 면에서 앞서갈 수 있다. 송 대표는 축산도 예외가 아니라고 한다. 지금의 배움이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마이스터(전문축산경영인)에 도전했고, 이제 그 결실을 후배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었다.

### pm 04:00 축산의 미래는 사람이다

"이쪽 분야에서는 꾸준히 공부해야 앞서갈 수 있습니다.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연구해야 합니다. 그러다 보니, 문득 깨닫게 되었죠. 사람이 우리의 재산이라는 것을. 강의를 마친 후 다시 농장으로 돌아온 송 대표는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. <금강축산>의 경우, 7명의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다. 늘 가족같이 대하고 존중하되, 외국인 노동자라도 차별하지 않는다. 짧은 아르바이트라도 대우에 있어 소홀히 하지 않고, 능력이 따르면 충분한 보상을 지급한다. 그런 사람이 일해야 농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이다. 그래서 '벌어서 남 주자!'라는 사훈이 생겼다고 한다.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기에, 지금의 <금강축산>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. 사람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어찌 보면 가족을 키우는 일보다는 어렵겠지만, 그것이 더욱 큰 발전을 가져오는 지름길이라고 한다. "가까운 미래에는 <금강축산>의 한돈이 1만 마리가 될 것입니다. 이를 위해 더욱 열심히 사람과 함께 배워갈 것입니다." ☺

